

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현황 및 전망

함 승 시

강원대 바이오누리사업단

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은 국가의 10대 성장동력산업이자 강원도의 제1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분야의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인재 공급을 증대시키고, 궁극적으로 지역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다. 2004년 7월 전국적인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본 사업단은 중심대학인 강원대학교를 축으로 협력대학인 한림대학교와 손을 잡고 있으며, 강원도와 춘천시, (재)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, (재)강원테크노파크 그리고 바이오산업 관련 7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.

2004년 8월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및 각종 교육여건을 점검하였고, 9월에는 본 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. 같은 해 10월 우수기획사례로 선정되어 「NURI 우수기획 사례발표회」에서 발표하였고, 11월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사업을 홍보하였다. 또한 학부생들의 논문발표를 장려하고자 졸업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하였다. 12월에는 고교홍보와 함께 우수신입생의 유치를 위해 3일에 걸쳐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,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춘천바이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(재)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.

운영위원회, 산학협력위원회, 사업추진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계속하여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본 사업계획에 있던 많은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.

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바이오산업 관련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학기 바이오산업 관련 과목을 사업단에서 개설하였으며, 현재 8과목이 강원대학교 및 한림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 이중 3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. 또한 두 대학의 학습 효율성 제고 및 교류기반 조성을 위해 원격 화상교육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각종 세미나가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다. 이 외에도 실습기자재 확충사업, 소모성 재료지원,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 지원을 통해 사업단 참여 학과의 환

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며, 졸업논문발표지원, 산업화연구과제 학생참여 인건비 지원, 취업동아리지원, 어학능력우수자지원, 인턴쉽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. 산업체 또한 산업체 기술지도, 단기공동연구사업, 산학협동연구 인력지원사업, 산업체 인력재교육 Part-time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과 연계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으며, 이를 통해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역시 현실에 발맞춘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기회를 만들었다 할 수 있겠다. 장학사업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, 2005년 3월 현재 약 1,460여명의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.

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은 출범한지 채 일년이 되지 않은 신생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진행에 있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나 본 사업단은 작년과 금년 두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며, 2005학년도에는 사업단 소속 학부의 대입경쟁률이 약 2배가량 상승하고 작년대비 우수 신입생이 다수 입학하는 등 만족스러운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.

바이오분야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, 교육/연구의 질적인 향상, 진학 및 취업의 제고, 지역 내 기업 유치 등 다방면을 통한 궁극적인 강원도의 경제발전 및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.